

전남도, 에너지신산업 육성사업 순항

에너지 섬 조성 연구용역 착수 수전해 성능시험센터 구축 박차 10년간 19조 투입...며거리 창출

전남도가 2050 탄소중립 실현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추진중인 '그린수소산업' 육성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월 수립한 전남 수소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포함된 '그린수소 에너지섬 조성'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국비 2억원을 확보했다.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은 해상풍력과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기지 조성의 초석이다.

그린수소 에너지섬 조성사업은 8.2GW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을 활용

한 잉여 전력을 전남의 비교우위 자원인 섬에 수전해 생산한 그린수소가 큰 틀이다. 이곳에서 생산한 그린수소는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석유화학 단지 등에 공급해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광양만권의 우수한 철강·석유화학 산업환경 기반을 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로 조성하는 '광양만권 수소산업 융복합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계

된다. 산업부는 그린수소 생산기지 조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2023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며, 전남도는 성공적인 용역수행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현재 수소경제 정책이 기후 변화 대응과 청정에너지 사회 진입을 위한 필수 요소로 판단하고 수소산업 육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육성 전략의 하나로 지난해 12월 산

업부 공모사업인 '수전해 시스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성능시험센터 구축'에 선정됐다. 2024년까지 국비 153억원을 지원받아 그린수소 핵심기술인 수전해 시스템 생산에 나서게 된다. 전남도는 수전해 성능시험센터를 기반으로 향후 세계 최초로 수전해 인증센터까지 구축, 전남을 그린수소 생산의 중심지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 1월에는 그린수소 메카로 도약하는 청사진을 담은 '전남 수소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 7대 전략 27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올해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19조346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에 1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그린수소산업은 전남이 선도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린수소는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그레이(Gray) 수소와 달리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다. 주로 수전해 기술을 통해 생산되는 청정에너지원이다. 전력 부하에 따라 유동적인 생산량 조절이 가능해 풍력·태양광·지열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의 부하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정근산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은 19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부이 덩 럼 베트남 응에안성 인민부위원장을 접견하고 자매결연 등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시 제공

강 시장 “베트남 응에안성과 폭넓은 교류”

인민부위원장 접견 협력 모색

강기정 광주시장은 19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부이 덩 럼 베트남 응에안성 인민부위원장을 접견하고 자매결연 등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한국과 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 도시 간 경제·통상 협력 및 문화·예술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광주시는 시의회 등의 의를 거쳐 오는 10월 중 베트남 응에안성에서 자매결연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

이다. 강 시장은 “광주시에 거주 중인 외국인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인들은 우리 광주시민이다”며 “베트남의 역사 깊은 도시인 응에안성 대표단의 광주 방문을 환영하고 오늘 의 만남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광주의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 진출에 큰 관심을 보이는 만큼 기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다양하

고 폭넓은 경제협력과 문화교류를 통해 양 도시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부이 덩 럼 부위원장은 “대한민국과 베트남이 교류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때에 광주와 응에안성이 자매결연이라는 큰 인연을 맺게됐다”고 말했다. 이어 “자매결연 협약이 단순 협약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양 지역에 도움이 되고 지역민 삶이 더 나아지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용현 기자

전남도의회 정례회

도청 직원들 ‘악성 민원’ 보호받는다

전경선 의원, 지원조례 발의
전남도청과 도 산하기관 민원담당자들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1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이 대표발의한 ‘전남도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사항을 구체화했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홍보 방안 마련 의무화 등도 명

시했다. 특히 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민원담당자를 위한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제공 ▲법률상담 및 소송절차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등의 지원 내용을 담았다. 조례가 시행되면 도 산하기관 공무원,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등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 모두가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보호 지원을 신청하면 되고, 도지사는 7일 이내 지원 결정을 해야 한다. 전 의원은 “최근 전남도청 내에도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때문에 심리적 고통은 물론 업무 방해까지 받고 있는 직원이 한 둘이 아니다”며 “최일선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원담당자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양질의 민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악성민원으로 인한 행·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직원 대상 힐링 프로그램 운영, 안전요원 배치 등 예방 관리에도 철저히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근산 기자

“전남도 지방세 예측 15% 이상 격차”

차영수 의원 “적기 사업 지장”
전남도의 지방세 세수 예측정확도가 매우 낮아 적기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기획행정위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은 최근 열린 제365회 제1차 정례회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심사에서 “전남도의 낮은 세수 예측정확도는 결국 도민을 위한 사업을 저지

에 추진할 수 없게 한다”고 지적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2021년도 지방세 수입 추계액은 1조9,100억원인 반면 실제 수납액은 2조2,225억5,830만원에 그쳐 3,125억원가량 격차가 발생했다. 차 의원은 “지난 5년간 추계액과 수납액의 차이를 보면 2017년 15%, 2018년 15%, 2019년 13%, 2020년 17.5%, 2021년 17.6% 정도로 매년



15% 정도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입 예산 추계 분석 보고서 등 예산안 첨부서류 제출이 필요하다”면서 “세수 예측정확도를 높여 다음 연도 예산에 정확히 반영해야 도민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효과적인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근산 기자

“전남청년 매년 1만명 유출, 특단 대책을”

강문성 의원, 차별화 주문
매년 1만여명에 이르는 전남지역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주거·양육 등 차별화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기획행정위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은 최근 열린 제365회 제1차 정례회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서 전남 청년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 심각성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도내 청년들이 매년 1만명씩 전남을 떠나고 있는데 이렇다 할 해답을 내놓지 못하는 등 계속 똑같은 일만 반복하고 있는 경직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전남지역 청년층(만



18~39세)의 순유출 인구는 5만2,066명으로, 매년 1만여명 안팎의 청년이 전남을 떠나고 있다. 강 의원은 “전남의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 주거환경, 양육환경 등 여러 여건을 유기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근산 기자

광주시,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 모집

광주시는 건축물의 사용가치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해 20일부터 10월21일까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건축물 점검기관 ▲안전진단기관 등 2개다. 광주시에 등록된 건축사사무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이 대상으로, 기술인력과 장비, 자본금을 갖춘 신청할 수 있다. 광주시는 기술인력과 장비 보유 현황 등을 검토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를 작성한 후 자치구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용현 기자

www.hdamis.com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기업

현대아미스는 오늘도 정상을 향해 도전합니다!

공동주택관리 전기안전관리 소방시설관리 경비용역 청소·미화 소독·방역

현대아미스그룹

- 현대아미스(주)
- 아미스(주)
- (주)한솔티엠에스
- 한솔엘리베이터(주)
- (주)아미스능력개발원
- (주)도곡전기엔지니어링
- (주)아미스개발
- 메인기획협동조합
- 복지TV호남방송

회장 김우열

광주 서구 상무대로 673번길 8 (마북동 173-8번지)
T.062)225-1050 FAX.062)463-7300